1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가 11일 강릉오벌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금메달을 확정한 뒤 포효하고 있다. 그는 이 종목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2노르웨이가 평창알펜시아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남자 30km 스키애슬론에서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했다. 왼쪽부터 금메달의 시멘 헤그스타드 크뤼게르, 은메달의 마르틴 욘스루드 순드뷔, 동메달의 한스 크리스테르 홀룬드. 3개회식 때 잠깐 물러났던 동장군이 되살아났다. 남자 30km 스키애슬런에 출전한 독일 선수의 얼굴에는 고드름이 맺혔고, 4알파인스키에 출전한 이탈리아 선수는 얼굴에 테이핑을 하고 칼바람을 막았다. 강릉·평창 | AP뉴시스·연합뉴스

NBC, 한국비하 진정성 없는 사과…1조506억원의 갑질?

〈올림픽 중계권료〉

NBC 해설자 "한국, 日 식민지배 덕에 발전"
방송 직후 항의 잇따르자 급하게 공식사과
국민 분노…'망언' 레이모 직접 사과 요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은 매우 매끄러웠다. 동계올림픽 역대 최고 퍼포먼스로 뽑히는 개회식과 곧이어 나온 쇼트트랙 대표팀의 첫 금메달 소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평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순조로운 붐업 과정에 생각지도 못한 잡음이 섞였다. 아니 잡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었다.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미국 NBC의 해설자가 개회식 중계 과정에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 할 '망언'을 쏟아냈다.

NBC는 이번 올림픽 중계를 위해 중계권료로만 9억6300만 달러(약 1조506억원)를 지불했다. 2014년소치동계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만 이미 44억 달러(약 4조8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은 거대 방송사다. 투자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대부분 늦은 저녁 시간에 편성돼 있는 이유도 모두 NBC의 미국 현지 방송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올림픽 '갑' 역할을 맡고 있는 NBC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메인 중계 부스에서 미국 전 지역에 생중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중계에 나선 해설자가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언급했다. 해설자는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이지만, 한국의 변화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모든 한국인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슈아 쿠퍼 레이모

방송 직후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미국 본토에서 생중계를 직접 본 교포들은 NBC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도 즉시 행동에 나섰다. 조직위는 방송이 나간 직후 즉각 항의하며 NBC측에 '공식 사과서신 전달 및 생방송을 통한 정정보도'를 강력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11일 "NBC에 즉각적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했고, NBC는 이와 관련해 '이 발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하며,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서신을 조직위 측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NBC가 7500만 명이 시청하는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과를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NBC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해당 발언을 한 해설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개회식 해설을 맡아 '망언'을 쏟아낸 NBC 해설자는 조슈아 쿠퍼 레이모(Joshua Cooper Ramo)다. 평창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강추위+강풍 습격…알파인스키 연기

평창 한파특보…강릉·정선 강풍특보

개회식은 하늘이 도왔다. 그러나 잠시 물러간 동장군은 더 강력한 칼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돌아왔다. 강풍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후 처음으로 경기 일정도 변경됐다.

올림픽 개막 이틀째인 11일 평창에는 다시 강력한 추위가 몰아쳤다. 평창군은 이날 최저영하 12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도 영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올림픽 플라자 인근과 알펜시아 리조트 등지에는 강풍이 몰아쳤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다. 한 낮 초속 10m로 불던 바람은 해가 지고 난 뒤 15~20m로 더 강해졌다.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다. 결국 평창에는 한파특보, 강릉과 정선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강한 칼바람 때문에 결국 이날 대회 개막 이후 처음으로 경기가 연기됐다. 오전 11시 정선 알파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은 초속 20m의 강풍으로 15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15일 예정됐던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회전은 16일 오전 11시로 바뀌었다. 앞서 올림픽 공식 정보 사이트는 바람을 초속 6~8m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두배 이상 강풍이 불면서 이른 오전부터 슬로프 진입 금지가 결정됐다.

더 큰 문제는 강풍이 계속 이어질 경우다. 강풍 특보는 12일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오전 10시 시작되는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도 연기될 수 있다. 또한 12일 오후 9시35분에는 바람에 가장 민감한 종목인 스키점프 노멀힐 남 개인 결승전이 예정돼있다.

11일 취소된 경기 입장권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교환 없이 변경 날짜에 관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관람이 어려운 관중은 대회 입장권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평창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